



BNK금융그룹-기보, 데이터 산업 지원 MOU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 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데이터 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왼쪽부터), 박성욱 BNK금융지주 그룹미래디지털혁신부부장,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금융



현대차정몽구재단, '온소 퓨처스 컬리지' 출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오는 5일부터 서울 중구 명동길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대학생을 위한 '온소 퓨처스 컬리지'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 강연뿐 아니라, 기업탐방, 스타트업 멘토링, 워크숍, 1박2일 역량강화 캠프, 팀 프로젝트 발표 등 협업과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현대차정몽구재단



삼양그룹, 대학생 서포터즈 '삼양씨즈' 8기 발대식

삼양그룹은 지난 2일 판교 디스커버리센터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삼양씨즈' 8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지난 2017년 시작한 삼양씨즈는 삼양그룹의 대표적인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으로, 씨앗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씨드(Seed)에서 이름을 따와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듯 잠재력을 지닌 대학생들이 크게 성장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삼양그룹



G마켓, 소규모 셀러 '안전보건 체계구축' 컨설팅

G마켓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입점 셀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체계구축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컨설팅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G마켓, 옥션의 입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 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해 자발적 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하는 내용이다. /G마켓



국민대, '제2회 안중근의사찾기 학술대회' 개최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는 상해외국어대학교 중일한학연구소, 안중근의사찾기 한-중민간합성위원회와 지난달 29일 상해외국어대학교 송지양캠퍼스에서 '제2회 안중근의사찾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안중근 정신 선양을 통한 한중관계 강화'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의견을 교류했다. /국민대

오뚜기, 안양에 기념관 착공... "배움·공감의 장 활용"

함태호 명예회장 정신 계승
2028년 1월 정식개관 목표

종합식품회사 오뚜기가 3일 '오뚜기 기념관(가칭)' 착공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안양시 오뚜기 안양공장 내 오뚜기 기념관 건립부지에서 열린 착공식 행사에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 황성만 오뚜기 사장,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 신형철 교수(신스랩건축), 이민재 미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참석했다.

'오뚜기 기념관'은 오뚜기의 창립 제품인 카레가 생산되던 오뚜기 안양공장 카레동 부지에 건립되며 규모는 지하 2개층, 지상 5개층으로, 부지 2만4456㎡, 연면적 2만495㎡ 규모다.

오뚜기 창업주 품평 함태호 명예회장의 생애와 경영철학을 보여주는 공간과 한국 근현대 식문화를 이끌어온 오뚜기의 역사를 소개하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 황성만 오뚜기 사장(왼쪽 네번째부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3일 오뚜기 기념관 증축공사 착공식에서 삼을 뜨고 있다. /오뚜기

공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오뚜기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오뚜기 브랜드를 전 세대가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오뚜기 기념관은 시범 운영을 거쳐 품평 함태호 명예회장 서거 10주년인 2026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개

관 후 2028년 1월에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양시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 기념관은 인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해 온 오뚜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

보존하고 함태호 명예회장의 숭고한 정신을 알려 계승 발전시키고자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며 "안양시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식품에 대한 배움과 공감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전국 산림휴양시설 알루미늄캔 재활용

산림청·포스코엔텍 업무협약
신영수 대표 "ESG 경영 확대"

CJ대한통운이 지난해부터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진행해 온 알루미늄캔 자원순환사업을 산림청 산하 산림휴양시설로 확대한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일 서울 종로 본사에서 산림청, 포스코엔텍과 '산림휴양·복지시설 자원순환 및 ESG경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산림휴양시설에서 배출하는 알루미늄캔을 CJ대한통운의 배송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



지난 1일 서울 종로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열린 '산림휴양·복지시설 자원순환 및 ESG 경영 업무협약' 행사에서 (왼쪽부터)송치영 포스코엔텍 대표, 남성현 산림청장,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하는 것이 골자다.

CJ대한통운은 이달부터 전국 숲 체원 및 자연휴양림 19곳에서 배출된 알루미늄캔을 수거해 포스코엔

텍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포스코엔텍은 회수한 알루미늄캔을 철강원료로 재활용하고, 알루미늄캔 선별 작업에 장애인 인력을 고

용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산림청은 효율적 수거를 위한 현장 관리와 행정지원,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CJ대한통운과 포스코엔텍은 재활용 캔 수거량만큼 산림탄소배출권을 구매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기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CJ대한통운 신영수 대표는 "국내 1위 물류기업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순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친환경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물류업 본연의 역량을 활용한 CJ대한통운만의 ESG경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부,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

신민경 셀타스케어 대표 '대상'

인공지능(AI) 기반의 의약품 주기 부작용 감시 자동화 플랫폼을 만든 셀타스케어 신민경 대표가 '2024년 제25회 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샘잼테라퓨틱스김정은 대표, 이엑스헬스케어 이용희 대표에게 돌아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3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S1)에서 '제25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을 가진 여성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여성 (예비)창업자 대회다. 총 1003개팀이 참가해 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대회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총 40개팀을 최종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포상과 함께 후속지원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이 3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1에서 열린 2024년 제25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신민경 셀타스케어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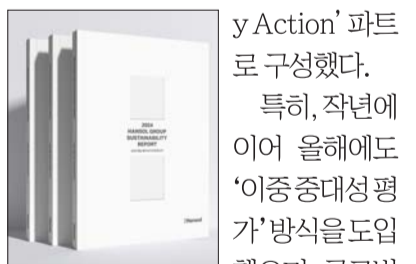
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올해로 25회차를 맞은 여성창업경진대회는 미래를 대표하는 기술 기반 여성 창업기업 육성의 산실로 자리를 잡았다"며 "여성창업기업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한솔그룹,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국제표준 GRI에 맞춰 제작

한솔그룹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가 그룹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주요 성과를 담은 '2024년 한솔그룹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사진)'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맞춰 제작했다.

한솔홀딩스를 포함한 계열사 11곳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현황 및 핵심 이슈에 대한 성과를 상세히 풀어낸 'Sustainability Essentials' 파트와 ESG 경영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담은 'Sustainability



'y Action' 파트로 구성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중중대성평가' 방식을 도입했으며,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공시 및 평가 기준에 따라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24년 한솔그룹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한솔홀딩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외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영문판도 8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부음

▲이단오씨 별세, 김상훈(새전북신문 기자)씨 외조모상=3일 오전 7시, 전북 고창 고인동장례식장 201호, 발인 5일 오전 8시30분. 063-562-3233
▲임맹기씨 별세, 임현우·태훈(군인권

센터 소장)·현진씨 부친상, 김주연·박상희씨 시부상, 임지원·지민씨 조부상 = 3일, 경북 영주 명품장례문화원 2층 VIP실, 발인 5일 오전 9시30분. 054-634-4444